



2006년
제10집

성철 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에 대한 원효적 해석

김 영 주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성철 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에 대한 원효적 해석

김 영 주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1. 서 론

1912년 경상남도 산청(山淸)에서 태어난 성철스님은 법명이 성철(性徹), 법호는 퇴옹(退翁), 속명은 이영주(李英柱)다. 진주중학교(晉州中學校)를 졸업하고 1936년 봄에 해인사(海印寺)로 출가하여 하동산(河東山) 대종사(大宗師)를 스승으로 득도하였다. 파계사(把溪寺)에서 행한 장좌불와(長坐不臥)는 8년 동안 계속되었다.

출가 4년만인 1940년(29세)에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깨달음의 시를 읊은 뒤 여러 선원에서 수행을 계속하였고, 1955년 대구 팔공산 성전암으로 들어가 철망을 두르고 절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며(洞口不出), 10년만인 1965년 김용사로 나와 대중법문을 하였다. 1967년 해인총림 초대방장에 취임하였고 그 해 겨울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유명한 ‘百日法門’(나중에 단행본으로 간행)을 하였다.

종단(宗團)의 분규가 아물지 않은 1981년 1월 대한불교 조계종 제7대 종정으로 추대되었으나 합천 해인사 백련암(白蓮庵)을 떠나지 않고 구도를 계속 하였다. 1981년 1월 20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성철스님의 종정수탁법어는 일종의 화두성격을 띤 선문답 같은 것으로 불자가 아닌 세인들까지 회자되는 계기가 되었다.

성철스님은 지눌(知訥)의 돈오점수(頓悟漸修)를 비판하고 돈오돈수(頓悟頓修)를 주장하여 불교계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당대의 선승이자 經律論三藏에도 밝은 학인(學人)이었다. 1993년 11월 4일 해인사 퇴설당에서 ‘참선 잘 하라’는 말씀을 남기고 입적하였다(성철, 2005c : 서문).

한편, 압량군(押梁郡 佛地村 : 지금의 경산군 자인면)에서 태어난 원효스님

4 성철 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에 대한 원효적 해석

(617 - 686)은 속성이 설(薛), 법명이 원효(元曉), 법호가 화정(和靜), 아명이 서당(誓幢)·신당(新幢)이며, 文廟에 배향된 十八儒賢의 한 사람인 설총(薛聰)의 아버지이다. 648년(진덕여왕2) 황룡사(皇龍寺)에서 승려가 되어 수도에 정진하였다. 가산을 불문에 희사, 초개사(初開寺)를 세우고 자기가 태어난 집터에는 사라사(沙羅寺)를 세웠다.

661년 의상(義湘)과 함께 떠난 두 번째 당나라 유학길에서 오래된 무덤의 해골물을 마시고 대오(大悟)한 후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하였다. 그 후 분황사(芬皇寺)에서 원효 나름의 독자적인 통불교(通佛敎: 元曉宗·芬皇宗·海東宗 등으로도 불린다)를 제창,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원효는 태종무열왕의 딸 요석공주(瑤石公主)와 파계(破戒)하여 설총을 낳은 후 승복을 벗고 소성거사(小性居士)라 자칭 <무애가(無碍歌)>를 지어 부르고, 가무와 잡담으로 불법을 교화하여 민초 속에 파고들었다. 원효는 그 후 참선과 저술로 만년을 보내다가 70세에 혈사(穴寺)에서 입적하였다. 그가 저술한 1백여종 240권의 책 가운데 현재 20부 22권의 저서만이 남아 있다. 현존하는 저술 가운데 원효다운 면모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저술은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등이다. 고려 숙종에게 대성화정국사(大聖和靜國師)라는 시호를 받은 원효는 불교사상의 융합과 그 실천에 힘쓴 통불교의 선구자이며, 유불선 三敎를 통달한 한국불교사상 가장 위대한 학승으로 간주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는 성철스님의 법어가 유가사상 및 도가사상과 달리 불교사상(원효의 대표적 저술을 중심으로 살펴봄)에서는 어떤 사고구조에 따라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해 보는데 있다. 물론, 공안화두(公案話頭) 성격을 띤 선문답(禪問答) 같은 이러한 법어들은 해설이나 논평을 가하지 않는 것이 선가(禪家)의 상식으로 되어 있지만 말이다.

2. 법어(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에 대한 성철의 해석

사전적 의미로 법어(法語)는 불어(佛語)와 동의어로서 ‘부처의 가르친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불교교단에서는 최고책임자인 종정(宗正)이 해마다 신년

이나 초파일에 살아가는데 금과옥조가 될 만한 법어를 대중들에게 통상적으로 발표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법어는 신년법어나 초파일법어가 아니라 1981년 1월 20일 성철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 제7대 종정을 수락하면서 대중들에게 발표한 이른바 종정수락법어이다. 그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성철, 2005c : 15).

“원각(圓覺)이 보조(普照)하니 적(寂)과 멸(滅)이 둘이 아니라
보이는 만물은 관음(觀音)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妙音)이라.
보고 듣는 이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아아, 시회대중(時會大眾)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山是山, 水是水)”

1983년 5월 16일, 불교학자 김지건은 성철스님과의 대담(경향신문 박석홍 기자 정리)에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법어의 참뜻을 물은 적이 있다. “스님께서 하신 이 법어가 시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요(山不是山, 水不是水)라는 말과 다른 것도 같고 같은 것도 같다”며 참뜻을 어떻게 터득해야 되는지 그 방안을 묻자 스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성철, 2005c : 302 - 303).

“마음의 눈을 떠야지요. 실상을 바로 보는 눈을 말합니다. ... 마음의 눈을 뜨면 결국 자성(自性)을 보는데, 그것을 견성(見性)이라고 하지요. 팔만 대장경에 그토록 많은 말씀이 담겨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마음 심(心)’ 한 자에 모든 것이 귀결됩니다. 마음의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지요. 그리고 물 위로 가는 본지풍광의 소식이지요”

성철스님의 답변은 ‘마음의 눈’만 뜨면 이 법어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견성성불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눈을 뜬다는 것이 범부로서 쉬운 일이겠는가?

성철스님은 김지건 박사와 대담을 한 4일 뒤인 5월 20일, 중앙일보 이은운 기자와 대담을 하면서, ‘산은 산, 물은 물’과 같은 평상심(平常心)의 진리를 체

6 성철 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에 대한 원효적 해석

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다소 길게 대답하였다(성철, 2005c : 310 - 311).

“산은 산, 물은 물이라고 함은 누구든지 보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서 이것을 바로 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선가(禪家)에서는 이를 바로 보면 대도(大道)를 성취했다고 하지요. 자세히 말하면, 인간은 대개가 잡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잡념이 끊이지 않은 상태로는 이를 바로 볼 수 없으며 잡념을 끊은 무심(無心)에서도 바로 볼 수 없으니, 이는 無心이 아직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깊은 심리상태인 무심의 경지를 벗어나 홀연히 마음의 눈을 뜨면 큰 지혜의 광명이 우주를 비추어 '산은 산, 물은 물'을 역력히 바로 보는 동시에 일체를 바로 보고 바로 알게 되니, 이것을 깨침이라고 합니다. 이 깊고 깊은 법을 성취하려면 마음 닦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음 닦는 공부 중에서 참선(參禪)이 가장 첩경이니 선종(禪宗)의 화두(話頭)를 배워서 열심히 하면 일상 행동할 때에도 화두가 간단없이 계속되며 나아가서는 꿈속에서도 항상 계속되지요.

여기에서 더욱 노력하며 물러서지 않으면 깊은 잠에 들어도 화두는 역력히 계속되니, 이것은 모든 잡념이 완전히 끊기고 무심상태가 된 증거입니다. 이 숙면일여(熟眠一如)의 무심에서 활연대오하면 마음 눈을 크게 떠서 산은 산, 물은 물이라고 소리치게 되니, 이런 사람을 자유자재한 대해탈인이라고 부르지요.”

여기서 성철스님은 다시 한번 '마음의 눈'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수심하는 방법으로 참선(看話禪, 默照禪, 數息禪 가운데 看話禪을 중시)이 첩경이며 이를 통해 자나깨나 똑같은 상태(숙면일여)의 무심경지에 이르면 이 법어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동시에 해탈을 얻는다는 것이다.

1983년 5월에 발행된 <샘터>에는 성철스님과 샘터사 정채봉 기획부장과의 대담이 실려있다. 정채봉 기획부장이 프랑스 작가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의 말을 인용하면서 '현대문명사회의 미(美)는 사물의 경우 자연의 원리에 충실

할 때라고 했는데,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성철, 2005c : 354).

“자연을 바로 보는 것이 참다운 미(美)입니다. 화가는 자기 보는 대로 그리지요. 그러나, 눈을 뜨고 보는 사람하고 눈을 감고 보는 사람의 작품은 천지차이가 있는 겁니다. ... 사람들이 눈을 뜨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감고 사는 거예요.

눈을 바로 떴을 때라야 ‘아, 내가 이제껏 눈을 감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지요. 꿈을 꾸면서 꿈이라고 어디 생각합니까? 꿈을 깨서야 아, 꿈을 꿴었구나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연 해도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나 그것을 바로 보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어서 정채봉 기획부장은 ‘바로 보는 경지’를 이른바 도(道)라고 하는 것 같은데, 道의 정의와 도를 깨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스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성철, 2005c : 354 - 355).

“道는 우주의 근본이며 만물의 자체이니 시공을 초월하고 시공을 포함한 절대체입니다. 따라서, 만물 하나 하나가 모두 道이며 현실이 곧 절대입니다. 이 도는 인간의 마음속에 완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로 보면 도를 아는 것이니 이것을 깨쳤다고 하지요.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망상이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이니, 구름이 해를 가리면 해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 망상이 티끌만큼이라도 남아 있으면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철스님의 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음의 눈(心眼)’이 열려야 하고, 이 심안을 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參禪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선하지 않는 일반사람은 이 법어를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가?

3. 儒佛仙의 사고구조와 언어관

김정탁에 따르면, “儒·佛·仙은 우리들의 전통적인 사유체계이기도 하지만

동양을 다른 지역과 구별하는 대표적인 사유방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儒 · 佛 · 仙의 커뮤니케이션觀은 불가에서 '유식론'(唯識論)으로, 도가에서 '비명론'(非名論)으로, 유가에서 '언행론'(言行論)으로 각기 나타난다. 이것들은 불가의 '불립문자'(不立文字), 도가의 '언어도단'(言語道斷), 유가의 '입상진의'(立象盡意)로 각기 상징화될 수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儒 · 佛 · 仙의 핵심적 명제를 관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하였다(김정탁, 2004 : 265).

우리나라는 유사이래 지금까지 다양한 사상에 영향을 받아 왔지만 특히, 유불선 삼교의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까지도 의식 ·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필자는 사람의 사고패턴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상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3가지는 유가적 사고 · 도가적 사고 · 불가적 사고 등을 말한다(연세대 한태동교수 강의노트). 이 사고구조는 유가적 언어관인 정명사상(正名思想), 도가적 언어관인 비명사상(非名思想), 불가적 언어관인 화쟁사상(和諍思想)과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 유가사상의 사고패턴과 정명(正名)사상

유가사상의 사고구조(Thought Pattern of Confucianism)는 ① $X \cdot X ; (-X) \cdot (-X) \rightarrow Y$ ② $X \cdot (-X) ; (-X) \cdot X \rightarrow -Y$ 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 사고구조는 특징이 正名思想(名實相符해야 한다고 생각)에 입각하여 시비(是非)를 가리며, 차별상을 지향한다. 이런 사고패턴은 본질적으로 당파(黨派)를 짓고 예송(禮訟) 논쟁이 일어나면 목숨을 걸고 싸우며 양시론(兩是論)과 양비론(兩非論)을 철저히 배척한다. 이런 사고구조는 이단논쟁을 유발하고 순교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유가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명을 바로 잡는 것'(正名)이라 인식하였다. 공자에 의해 제창된 正名사상의 핵심은 '正명이 政事의 전제조건임을 천명'한 것이다.

공자에 따르면,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禮樂이 흥할 수 없고, 예악이 흥하지 못하면 형벌이 적중하지 못한다. 형벌이 적중하지 못하

면 백성들이 수족을 둘 바를 모르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사물에 이름을 붙이면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말하면 반드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군자는 말함에 있어 구차해 하지 않을 뿐이다”(〈論語〉 子路篇)라고 하여, 正名 → 正言 → 成事 → 禮樂 → 刑罰(政事)과의 관계를 전자가 후자의 필요 조건임을 인과적으로 정리하였다. 즉, 이것은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답게 되면(君君臣臣父父子子) 정치는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였다.

순자 역시 正名の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임금이 이름(名)을 제정함은, 이름이 정해지므로 실제(實)가 분명해지고 도가 잘 행해지므로 뜻이 잘 통하게 된다. 백성을 신중하게 하나로 잘 통일시킨다”(〈荀子〉 正名篇)고 하여, 正名 → 實辨 → 道行 → 志通 → 一民의 인과관계로 정리하였다. 正名の 주체가 군자와 왕으로 다르지만, 공자와 순자는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

이 사고패턴의 증거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是是非非謂之智, 是非非是謂之愚 ... 是謂是, 非謂非, 曰直(〈荀子〉 脩身篇)(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것을 일러서 지혜롭다고 하며,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을 일러 어리석다고 한다. 옳은 것을 옳다고 이르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이르는 것을 일러서 바르다고 한다) / 是案曰是, 非案曰非(〈荀子〉 臣道篇)(옳은 것을 옳다고 이르며, 그른 것을 그르다고 이른다) / 以非爲是, 以是爲非, 是非無度, 而可與不可日變(그른 것을 옳다고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한다. 시비를 헤아릴 수가 없으므로 옳고 그름이 날마다 변하게 된다)

②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論語〉 爲政篇)(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로) 아는 것이다) ↔ 知不知上. ; 不知知病(〈莊子〉)

③ 君君, 臣臣, 父父, 子子(〈論語〉 顏淵篇)(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 信如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雖有粟, 吾得而食諸(〈論語〉 顏淵篇)(진실로 만약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

지 못하면 비록 곡식이 있다 하더라도 내 어찌 그것을 먹겠는가?)

④ 信信, 信也. 疑疑, 亦信也(<荀子> 非十二子篇)(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며, 의심나는 것을 의심하는 것 역시 참 믿음이다)

⑤ 貴賢, 仁也. 賤不肖, 亦仁也(<荀子> 非十二子篇)(현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짐이며, 불초한 자를 천하게 여기는 것 역시 어짐이다)

⑥ 觚不觚, 觚哉, 觚哉(<論語> 雍也篇)(4각 술잔(고)이 네모나지 않으면 고라고 하겠는가)

⑦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論語> 顏淵篇)(공자를 말하기를,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 席不正, 不坐(<論語> 鄉黨篇)(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는다); 使目非是無欲見也, 使耳非是無欲聞也, 使口非是無欲言也, 使心非是無欲慮也(<荀子> 勸學篇)(눈으로 보기에 그러면 곧 보려 하지 말고 귀로 듣기에 그러면 들으려고 하지 말며, 입으로 말하기에 그러면 말하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생각하기에 그러면 곧 헤아리지 말라)

⑧ 不在其位, 不謨其政(<論語> 泰伯篇; 憲問篇)(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책을 꾀하지 말라); 曾子曰, 君子思不出其位(<論語> 憲問篇)(증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생각이 자신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예컨대, 言官(비판기능) 및 史官(기록기능) 등이 목숨을 걸고 직책을 수행.

⑨ 不如鄉人之善者好之, 其不善者惡之(<論語> 子路篇)(마을 사람 가운데 착한 자는 그를 좋아하고 악한 자는 그를 미워하는 것만 못하다)

⑩ 子曰, 可與言而不與之言, 失人, 不可與言而與之言, 失言, 知者不失人, 亦不失言(<論語> 衛靈公篇)(공자가 말씀하시길, 더불어 말할 만 한데도 더불어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을 것이며, 더불어 말할 만 하지 않은데도 더불어 말하면 말을 잃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도 말도 잃지 않는다); 未可與言而言, 謂之傲. 可與言而不言, 謂之隱(<荀子> 勸學篇)과 비슷함.

⑪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 己所不欲, 勿施於人(<論語> 雍也篇; 顏淵篇; 衛靈公篇)(대저 어짐이라는 것은 내가 서고자 하려는 곳에 남을 세워주며 내가 이루려는 곳에 남을 이루게 하며 ...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않는다)

2) 도가사상의 사고패턴과 비명(非名)사상

도가사상의 사고구조(Thought Pattern of Taoism)는 ① $X \cdot X ; (-X) \cdot (-X) \rightarrow -Z$ ② $X \cdot (-X) \rightarrow Z ; (-X) \cdot X \rightarrow Z$ (가끔 극복 못함)이다. 이 사고구조는 특징이 비명사상(非名思想)에 입각, 대립과 차별상을 지양하여 유가사상의 사고패턴과 정반대이다. 非名思想은 언어적 분별이 사물의 분별을 낳고 이것은 또 다시 가치판단을 일으키게 되는데, 언어적 분별에 바탕을 둔 지식은 신용할 수 없다고 인식한다.

도가사상은 언어를 통해 전체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표의 중계 없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즉, 명상이나 직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김정탁, 2004 : 274).

따라서, ‘不譴是非, 以與世俗處’(시비를 질책하지 않고 시비와 함께 세속에 처함)를 중요시하였다. 세속적으로 옳다 혹은 그르다라는 是非의 딱지는 본래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고 인식한 도가의 기저에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물은 없기 때문에 천하의 是非가 시세에 따라 변천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 사고패턴의 증거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道德經> 第一章)(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며, 이름을 이름지을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 非名思想 ↔ 正名思想

② 信言不美, 美言不信. 善言不辯, 辯言不善(<道德經> 第八十一章)(믿을 수 있는 말은 꾸미지 않으며 꾸미는 말은 믿을 수 없다. 선한 말은 달변이지 않으며 달변은 선하지 않다)

③ 爲學日益, 爲道日損. 損之又損之, 以至於無爲, 無爲而無不爲矣(<道德經> 第四十八章)(배움을 위해선 날마다 더하고 도를 위해선 날마다 들어낸다. 들어내고 또 들어내면 무위에 이르게 된다. 행하지 않는데도 행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유가 key word : ‘學’ / 도가 : ‘道’

- 道常無爲而無不爲(<道德經>) 第三十七章)(도는 항상 행하지 않아도 행해지지 않는 것이 없다)

④ 失道而後德, 大道廢有仁義(<道德經> 第三十八章)(도를 잃고 나서 덕이

생기고, 큰 도가 없어지고 나면 인의가 있게 된다) ↔ 仁政思想(德治思想)

⑤ 上德不德是以有德, 下德不失德是以無德(<道德經> 第三十八章)(높은 덕은 덕이 아닌 것처럼 하는데 이것을 진정한 덕이라 하고 낮은 덕은 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진정한 덕이 없다고 한다)

⑥ 天下皆知, 美之爲美, 斯惡已, 皆知, 善之爲善, 斯不善已(<道德經> 第二章)(천하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이르면 이것은 악할 뿐이라는 것을 모두 알며, 착한 것을 착하다고 이르면 이것은 착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모두 안다)

⑦ 夫禮者, 忠信之薄, 而亂之首(<道德經> 第三十八章)(대저 예라고 하는 것은 충성스러움과 믿음의 빈약함이요, 어지러움의 시초다) ↔ 禮治思想

⑧ 知者不言, 言者不知(<道德經> 第五十六章)(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 知不知上 ↔ 不知知病(한계)

⑨ 大直若屈 ... 大辯若訥(<道德經> 第四十五章)(크게 곧은 것은 굽은 것 같다; 대단한 달변은 어눌한 것 같다)

⑩ 是亦彼也, 彼亦是也, 彼亦一是非, 此亦一是非, 果且有彼是乎哉(<莊子> 齊物篇)(이것 역시 저것이며 저것 역시 이것이다. 저것 역시 똑같이 시비를 가렸으며 이것 역시 똑같이 시비를 가졌다. 그렇다면 이것과 저것의 구별이 존재하는가?)

⑪ 夫大道不稱, 大辯不言, 大仁不仁, 大廉不廉, 大勇不忤(<莊子> 齊物篇)(대저 큰 도는 이름을 붙일 수 없고 대단한 변론은 말하지 않으며, 참 어짐은 인자하지 않고 큰 청렴함은 겸손하지 않으며 큰 용맹은 해치지 않는다)

3) 불가사상의 사고패턴과 화쟁(和諍)사상

불가사상의 사고구조(Thought Pattern of Buddhism)는 ① $(X \cdot X) : (-X \cdot -X) \rightarrow -W$ ② $X \cdot (-X) ; (-X) \cdot X \rightarrow W$ ③ $- | X \cdot (-X) | ; - | (-X) \cdot X | \rightarrow W$ 이다. 이 사고구조는 그 특징이 화쟁사상(和諍思想)에 입각하여 미분화된 사고를 통한 상대주의와 분별심을 지향한다. 이것을 일별 하면 도가적 사고구조와 비슷하다. 즉, ①번과 ②번만을 보면 동일한 사고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간주하기 쉽다. 그러나, ③번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다르다. 그런데,

이 ③번을 잘못 해석하면, 유가적 사고구조와 같다고 혼동하기 쉽지만 차원이 다르다.

유불선 삼교의 언어관은 각기 다르지만, '언어최소주의'에 입각하여 언어에 대한 신중론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불가사상은 言語超越思想이 특별히 강하다. 왜냐하면, 識을 통한 覺의 哲學이기 때문이다. 믿음을 통한 구원의 종교(基督教, 回教 등)와는 사뭇 다르다.

그러나, 불가의 언어관은 시대·종파에 따라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인물인 분다는 '언어의 사용'을 강조하였다. 그 증거로는 '언어의 사용'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팔만사천법문(팔만사천대장경이 있으며 불경의 일부인 般若部만 하더라도 성경의 15배 분량임)을 남겼을 것이다. 그는 죽을 때 "나에 의지하지 말고 나의 법(진리;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라"고 천명하였다.

분다는 궁극적인 진리의 표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언어가 지칭하는 개념 자체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였다. 즉,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말에 대응하는 불변의 실체를 가정한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했을 뿐이다.

분다가 죽고 몇 백년이 흐르면서 불교사상은 여러 가지 교파(근본불교 → 원시불교 → 소승부파불교 → 대승불교 → 밀교 및 선종)로 진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불교이론과 언어관을 가지고 되었다. 각 교파의 '언어와 진리와의 관계'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최유진, 1988 : 42 - 47).

① 有派(小乘部派佛敎의 하나) : 法(진리)은 실재하는 것이고 법을 지칭하는 언어를 갖고 있으며 법을 엄밀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용어를 정확히 정의해서 언어를 사용하면 진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中觀學派(大乘佛敎의 하나) : 언어는 '개념화된 대상을 고정화(실체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빠져서는 안된다(龍樹 : Nagarjuna). 언어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편' 즉, 진리를 체득하게 해주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모든 언어는 진리 그 자체는 아니다.

③ 唯識學派(大乘佛敎의 하나) : 언어가 우리들의 자아개념과 세계관을 왜곡시킨다. 즉, 언어에 의해 지칭되는 존재가 마음밖에 실재한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언어의 부정적 측면이다. '언어의 실재화'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언어

는 '해탈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④ 선종(禪宗) : 언어에는 진리가 포함되지 못한다고 인식한다. 극단적 언어 경시사상을 가지고 있다. 참선을 통한 깨달음을 얻으면 진리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인식한다. 선종에서는 “教外別傳, 不立文字, 言詮不及, 直指人心, 以心傳心”(진리는 경전밖에 별도로 전해지는 것이며, 문자와 말로 언급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에 직접 지정되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다)이라는 경구가 유명하다.

불교는 이처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처럼 다양한 언어관을 가지고 있지만, 분다 당시부터 '사물에 대한 언어적 표현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원시불교경전의 하나인 <經集>(Suttanipada)에 따르면, “말은 事物을 찌지 못하고 말은 幾微를 살리지 못한다. 말을 받는 자는 잃고 구절에 얽매이는 자는 미혹한다”고 하여, '언어의 한계성'을 일찍부터 지적한바 있다.

불가적 사고패턴의 증거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色即是空, 空即是色, 色不異空, 空不異色(<般若心經>)(눈에 보이는 사물은 곧 영원불멸한 본질이 없으며 공은 즉 색이다. 색은 공 아닌 것이 아니며 공은 색 아닌 것이 아니다)

② 應無所住, 而生其心(<金剛經> 莊嚴淨土分)(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 以無所得故(<般若心經>)(없음으로 얻은 바를 삼는 까닭에 ...)

①, ② → 眞空妙有的 단계

③ 凡所有相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金剛經> 如理實見分)(무릇 모양을 갖춘 것이 모두 허망하도다. 만약 모든 형상을 모양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면 바로 여래를 보리라)

④ 所言法相者, 如來說卽非法相. 是名法相(<金剛經> 知見不生分)(이른바 진리의 상이라는 것은 여래가 진리의 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을 일러 진리의 상이라 부른다)

⑤ 如來所說法, 皆不可取 不可說, 非法非非法(<金剛經> 無得無說分)(여래가 설하신 법은 모두 취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으므로 법<진리>이 아니며 법이 아닌 것도 아니다)

⑥ 須菩提! 所謂佛法者, 卽非佛法(<金剛經> 依法出生分)(수보리아!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다)

⑦ 須菩提! 佛說般若派羅蜜 則非般若派羅蜜, 是名般若派羅蜜(<金剛經> 如法受持分)(수보리아! 부처가 말한 반야바라밀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이것을 일러 반야바라밀이라 부른다)

⑧ 如來者, 無所從來, 亦无所去, 故名如來(<金剛經> 威儀寂靜分)(여래는 어디로부터 온 바도 없으며 어디론가 가는 바도 없다. 그래서 여래라 이름하는 것이다)

⑨ 無去, 無來, 亦無住(가지 않고 오지 않으며 역시 머무르지도 않는다); 양극단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집착하지 않는다(<經集> 彼岸道品)

⑩ 佛性, 非有非無, 亦有亦無, 有無合故, 名爲中道(<涅槃經>)(불성은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며, 또한 있는 것이며 또한 없는 것이니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합하는 까닭에 중도라고 한다)

⑪ 바른 理解를 가지려면 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너의 안에서 또는 너의 밖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죽여야 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祖師를 만나면 祖師를 죽여라. 그러면 너는 解脫을 얻을 수 있으리라(義玄, <臨濟錄>).

⑫ 有時奪人不奪境, 有時奪境不奪人, 有時人境俱奪, 有時人境俱不奪(義玄, <臨濟錄>)(어떤 때는 사람[주관]을 빼앗고 경계[객관]는 빼앗지 않으며 ... 어떤 때는 사람과 경계 모두 빼앗지 않는다)

4. 元曉의 언어관과 사고구조

원효의 사상은 그 근본을 '일심(一心)과 화쟁(和諍)에 두고 있다'고 한다(최유진, 1988 : 2). 그의 사상을 요약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을 화해시켜(和百家異諍; 和諍), 一心의 근원으로 돌아가는데 있다는 것이다. 즉, 원효는 '일심(一心)이야말로 화쟁(和諍)의 가능 근거이며, 목적지'임을 천명하고 있다(최유진, 1988 : 13).

원효는 기본적으로 一心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였고 궁극적인 목적도 一心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삼았다. 그의 첫 깨달음(해골물을 마시

고 頓悟頌을 읊음 ; '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龜墳不二, 三界唯心萬法唯識, 心外無法胡用別求'의 핵심은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一切唯心造)는 것이었다.

한편, 화쟁(和諍)은 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쟁론을 화해시키는 것이다. 즉, 쟁론은 일차적으로 '언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오는 법이다. 따라서, '언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화쟁'에서는 대단히 중요시된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이론(異論)들을 화해시켜 나가려고 할 때, 기존의 언어에 대한 태도변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곧 '언어에 대한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화쟁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최유진, 1988 : 42).

원효는 <大乘起信論>의 언어관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그는 <大乘起信論>의 "一切法從本已來, 離言說相, 離名字相, 離心緣相"(일체의 법은 본래부터 말로 규정된 모습을 떠났으며, 글로 규정된 모습도 떠났고 마음이 규정된 모습도 떠났다)과 "一切法從本已來, 非色非心, 非知非識, 非有非無, 畢竟不可說相"(일체의 법은 본래부터 현상이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앎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마침내 형상을 설명할 수 없다) 등의 영향 아래 있었다.

원효는 "말로써 이치(理致 ; 眞理)를 설명함에 있어 비록 그것이 부정의 형식으로 나타난다('말로 형언할 수 없다')고 해도 언어적인 표현('말로 표현)임에 틀림없다"고 인식하였다. 즉, 이치는 말을 떠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말이라는 것이다.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치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효는 '언어와 이치와의 관계'를 "理非絕言, 非不絕言, 以是義故, 理亦絕言, 亦不絕言"(〈大乘起信論疏〉)(이치가 말을 끊은 것도 아니고 또 말을 끊은 것이 아님도 아니다. 이런 뜻인 까닭에 이치가 또한 말을 끊은 것이기도 하고 끊지 아니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표현하였다.

원효는 '말을 떠난 진리를 말로써 가리키는 관계'(標月之指)가 의언(依言)과 이언(離言)의 관계라고 인식하면서 '以言遣言'(말로써 말을 보낸다), '依言離言'(말에 의존하여 말을 떠난다)(〈大乘起信論疏〉)이라고 주장하였다.

원효의 언어관(언어와 진리와의 관계)을 짐작할 수 있는 증거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常法, 非說非字者, 絕能詮名言故, 非諦非解脫者, 超所詮實義故 ... (<金剛三昧經論> 如來藏品) (영원한 진리는 언설도 문자도 아니어서 설명할 수 있는 名言을 끊은 까닭에 진리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다. 결국 설명되어진 실제 뜻(實義)을 초월하였으므로 ...)

② 諸言說唯是假名, 故於實性不得不絕(<大乘起信論別記>)(모든 언설은 오직 임시적 이름이다. 그런 까닭에 실제성품이 부득이 끊어졌다)

③ 此佛語 ... 妙契絕言之義(<金剛三昧經論>)(이 부처의 말씀은 ... '언설로 된 뜻'과 묘하게 끊어졌다)

④ 一切法不可說不可念, 故名爲眞如(<大乘起信論疏>)(일체법은 설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런 까닭에 '진여'라고 부른다)

⑤ 大乘之體 ... 不知何以言之, 強號之謂大乘, 玄之又玄之, 豈出萬像之表, 寂之又寂之, 猶在百家之談(<大乘起信論疏>)(대승의 본질은 ...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억지로 대승이라고 부른다. 현묘하고 현묘하다! 어떻게 만상을 표출할 수 있는가. 고요하고 고요하다! 오히려 백가의 담론 속에 들어 있다)

⑥ ... 強稱妙法蓮花(<法華宗要>)(억지로 '묘법연화'라고 부른다)

⑦ 衆生佛性不一不二, 諸佛平等猶如虛空 一切衆生同共有之(<十門和諍論>)(중생과 불성은 같은 것이 아니며 다른 것이 아니다. 모든 부처의 평등함이 허공과 같으며, 일체 중생이 공동으로 불성을 가지고 있다)

⑧ 無破而無不破, 無立而無不立, 可謂無理之至理, 不然之大然矣, 是謂斯經之大義也(<<金剛三昧經論> 初述大意)(깨어짐이 없으나 깨어지지 않음이 없으며, 세워짐이 없으나 세워지지 않음이 없도다. 가히 '이치가 없는 가운데 큰 이치이며 그러함이 없는 가운데 큰 그러함'이라 이른다. 이것이 이 경전의 큰 의미이다)

원효는 화쟁을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어의 본질적 이해'를 최우선으로 지적하였지만, 화쟁의 구체적 방안으로 ①극단을 떠남 ②여러 이론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自在 ③동의도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설명하기 ④불경 내용의 포괄적 이해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최유진, 1988 : 63 - 80).

원효는 '진리'(常法 ; 實性 ; 佛語 ; 一切法 등으로 표현)란 '임시적 이름'(假

名)이므로 언어와 개념을 벗어나 있지만 결국 '언어적 표현'(眞如; 大乘; 妙法蓮花 등으로 표현)을 통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진리를 깨닫는 방법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과 저것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둘 다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입장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논리전 개방식이다.

위에서 열거된 원효의 언어관에서 화쟁사상의 사고패턴을 유추해 보면, ① $X \cdot (-X) \rightarrow W$ ② $- |X \cdot -X| \rightarrow W$ 라고 할 수 있다.

5. 원효의 성철종정 수락법어에 대한 해석

선승인 성철스님의 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를 일瞥(一瞥) 하면 유가적 사고패턴 즉, $X \cdot X \rightarrow Y$ 를 닮아 있다. 성철스님이 유교적 관점에서 앞에 있는 산과 물은 '명'(名)이고 뒤에 있는 산과 물은 '실'(實)로서, '산은 산다워야 하고 물은 물다워야 한다'(명실상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철스님의 종정수락법어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다른 법어들은 ① $X \cdot (-X) \rightarrow W$ ② $- |X \cdot -X| \rightarrow W$ 의 사고패턴을 따르고 있다.

그 증거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성철, 2005c : 16 - 38).

① <만법이 불법>(1982. 1. 1 신년법어) : "만법이 불법이 아님이 없고 만사가 불사가 아님이 없어서 ... 악한 사람 착한 사람 모두 부처님의 모습이요, 맑은 물 탁한 물 모두 자비의 즐거이다"

② <축복의 물결>(1983. 1. 1 신년법어) : "선악의 시비는 허황된 분별일 뿐이요, 현실의 참모습은 영원하고 무한한 절대의 진리 위에서 있습니다"

③ <광명을 바로 보자>(1984. 1. 1 신년법어) : "우주에 무한하고 영원한 광명이 넘쳐 있습니다. 천당 지옥과 성인 악한이 그 본래면목은 다같이 광명 덩어리입니다"

④ <평화가 넘쳐흐르는 세계>(1985. 1. 1 신년법어) : "성인과 악마는 부질 없는 이름이니, 공자와 도척이 손을 맞잡고 태평성세를 축복합니다. 이는 허황된 환상이 아니요, 일체의 참모습이다"

⑤ <붉은 해가 높이 뜨니>(1986. 1. 1 신년법어) : "노담과 공자 손을 잡고"

석가와 예수 발을 맞추어 뒷동산과 앞뜰에서 태평가를 합창하니, 성인·악마 사라지고 천당·지옥 흔적조차 없습니다. 장엄한 법당에는 아멘소리 진동하고 화려한 교회에는 염불소리 요란하다”

⑥ <이 영원한 종소리를 들으소서>(1987. 1. 1 신년법어) : “이 신비한 종소리를 들으소서. ... 넓은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이 종소리에 흥겨워서 즐겁게 뛰노니, 천당과 극락은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⑦ <본마음>(1990. 1. 1 신년법어) : “깨끗하고 밝은 본 마음을 보려면 성인도 닦아내고 악마도 털어 버려야 합니다. 더욱이 각 종교의 절대적 권위인 교조들의 말씀은 본마음에 가장 큰 장애와 병폐가 되나니, 불교를 믿는 사람은 석가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버려야 합니다”

⑧ <이웃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비를>(1993. 1. 1 신년법어) : “시방세계에 드리워졌던 어둠이 걷히고 광명의 빛과 소리가 들립니다. 귀머거리가 우레소리를 듣고, 장님이 구름 속 번갯불을 보고, 앓은뱅이가 일어나 너울너울 춤을 춥니다”

성철스님은 ‘양극단을 집착하지 않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중도사상(中道思想)을 불교사상의 핵심으로 인식하였으며(성철, 2005a : 51 - 83) 특히, <涅槃經>과 <迦旃延經>의 중도(中道)에 대한 해석을 중시하였다. 그런데, 이 중도사상은 원효의 화쟁사상(화쟁의 구체적 방법 가운데 ‘극단을 피함’)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원효의 화쟁사상에 따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되면’ 산과 물이라는 두 극단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산과 물은 현상적·인식적 차원에서 ‘성주괴공’(成住壞空)과 ‘생주이멸’(生住異滅)을 그쳐야 되는 까닭에 이미 그 때의 산과 물은 아니라서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X·-X → W)라며 한번 부정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면 불가사상은 도가사상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불교사상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다시 부정(二重否定)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산은 산이 아닌 것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사고패턴(-|X·-X| → W)이 도출된다. 이것을 일별 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유가적 사고구조(X·X → Y)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고구조는 '한번 부정된 사고패턴'과 '이중부정을 통해 강한 긍정이 된 사고패턴'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성철 법어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은 산이 아닌 것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끝으로 '아버이'와 불구대천의 '원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3가지 사고구조에 따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가적 사고구조는 '아버이를 사랑하고(모시고) 원수에 대해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와 반대로 도가적 사고구조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가적 사고구조는 '사랑할 원수가 있어야 사랑하지'라고 정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가는 아버이와 원수를 본질적으로 구별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같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① 經書 및 子書類 : 〈論語〉; 〈荀子〉; 〈道德經〉; 〈莊子〉
- ② 佛經類 : 〈金剛經〉; 〈般若心經〉; 〈涅槃經〉; 〈經集〉(〈Suttanipada〉)
- ③ 佛教論疏類 : 〈臨濟錄〉; 〈韓國佛教全書〉(〈金剛三昧經論〉, 〈大乘起信論疏〉, 〈大乘起信論別記〉, 〈法華宗要〉, 〈十門和諍論〉 등)
- ④ 성철, 〈백일법문〉(상), 장경각, 2005a.
- ⑤ 성철, 〈백일법문〉(하), 장경각, 2005b.
- ⑥ 성철,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장경각, 2005c.
- ⑦ 최유진, 〈원효의 화쟁사상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 ⑧ 최정호, 〈한국의 문화유산〉, 나남출판, 2004.
- ⑨ 김정탁, 〈老莊·孔孟 그리고 맥루한 까지 의사소통사상〉, 월간 NEXT, 2004.
- ⑩ 연세대 한대동교수(신학대학) 강의노트.

Wonhyo's Explanation on "Mountain is Mountain, Water is Water" by a Zen Priest, Sungchul

Kim Youngju

Kyungnam University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how to understand Sungchul's canonical remark, 'Mountain is Mountain, Water is Water', in terms of the thought pattern of Buddhism rather than that of Confucianism or Taoism.

It is assumed that Human thought pattern is categorized into three ways:
1) Confucianism(① $X \cdot X ; (-X) \cdot (-X) \rightarrow Y$ ② $X \cdot (-X) ; (-X) \cdot X \rightarrow -Y$), 2)
Taoism(① $X \cdot X ; (-X) \cdot (-X) \rightarrow -Z$ ② $X \cdot (-X) \rightarrow Z ; (-X) \cdot X \rightarrow Z$) 3)
Buddhism(① $(X \cdot X) : (-X \cdot -X) \rightarrow -W$ ② $X \cdot (-X) ; (-X) \cdot X \rightarrow W$ ③ $- | X$
 $\cdot (-X) | ; - | (-X) \cdot X | \rightarrow W$).

When we take a glance over the Sungchul's canonical remark, 'Mountain is Mountain, Water is Water', it looks similar to the thought pattern of Confucianism($X \cdot X \rightarrow Y$) However, the rest of Sungchul's canonical remarks are grounded on the typical thought pattern of Buddhism(① $X \cdot (-X) \rightarrow W$ ② $- | X \cdot -X | \rightarrow W$). In the same vein, Wonhyo firmly maintains the thought pattern of Buddhism(① $X \cdot (-X) \rightarrow W$ ② $- | \{X \cdot -X\} | \rightarrow W$) by means of 'Wha-Jaeng'(Reconciliation) Thought.

Sungchul's canonical remark, 'Mountain is Mountain, Water is Water'

22 성철 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에 대한 원효적 해석

implicates the following meanings of polysemy: 'Mountain is not Mountain, Water is not Water' and 'It is not that 'Mountain is not Mountain, Water is not Water'. It signifies the paradigmatic understanding of Buddhist thought pattern.

key words : 성철법어, 유가 · 도가 · 불가의 사고구조, 원효의 화쟁사상